

반노이 박사 , Samuels, 강의 2

© 2011, 로버트 반노이 박사 및 테드 힐드브란트

지난 세션의 마지막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권은 언약을 부인하고 그들의 왕이신 야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었을 때, 그는 언약과 일치하고 인간의 왕권을 신권 정치의 구조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사울이 제비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공개적으로 선출된 미스바 의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0:17-27에 묘사된 미스바 의식을 발견합니다. 그 구절에서 제비가 사울에게 떨어진 후, 사무엘은 그를 주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택하신 사람으로 모인 회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울은 왕족의 위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중에서 다른 누구보다 키가 컸습니다(23절). 그는 즉시 "왕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환호를 받았습니다(24절).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왕이 주변 나라의 왕들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권의 규정이라는 본문에서 언급된 것, 더 문자적으로는 왕국의 방식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데 매우 주의했습니다. NIV 번역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권의 규정을 설명했다"고 읽을 수 있는 사무엘상 10:25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왕에 대한 죄스러운 욕망과 그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양보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불행히도 사무엘이 성소에 보관한 서면 규정의 사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그는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 17:14-20에서 준 이스라엘 왕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명이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절은 종종 “왕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헌 군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으로 왕권을 확립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율적인 권력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시나이 언약의 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신권 정치의 언약적 구조에 통합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주님의 지속적인 주권과 일치할 것이고, 그의 백성에게 대한 주님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지명된 후, 사울은 기브아 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우리는 사무엘상 10:26에서 그것에 대해 읽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 그리고 그는 전처럼 밭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11장 5절에서 우리는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중 사자들이 그에게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 대해 알리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전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사적 기름부음으로 왕으로 선출된 것은 사무엘상 9:1-10:16에서 , 그리고 그다음 제비뽑기로 공개적으로 선출된 것은 사무엘상 10:17-27에서 군주제가 이스라엘에서 운영되기까지의 3단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냅니다. 3단계 과정에는 지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기름부음을 받고, 제비뽑기로 선출되었고, 그다음에는 확인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취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11장에서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확인이 발견되며, 그것은 사무엘상 11:1-13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엘이 길갈에서 소집하고 11:14 에서 12장 말까지 25절까지 설명된 언약 갱신 의식에서 왕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인 야베스 길르앗 을 공격하여 포위했을 때 , 야베스 길르앗의 장로들은 기브아 에 있는 사울의

집에 사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알게 된 후, 사무엘상 11:6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는 분노에 불타올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야베스 길르앗 에서 서쪽으로 약 17 마일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의 베섹 으로 소집했습니다 . 그는 두 마리의 소를 잘게 찢어 땅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소집했고, 사무엘과 자신이 보낸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도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33만 명의 용사들이 재빨리 베섹 에 모였습니다 . 사울의 분노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영의 행동은 그가 주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나도록 힘을 실어주었고, 사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소환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것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7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에 다음 날 중순까지 그 도시가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1:9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야베스 의 지도자들은 나하스에게 다음 날 "그에게 나올 것"이라고 교묘하게 말했는데 , 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항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저는 "항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NIV 번역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10절) . 그러나 밤에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암몬 진영을 기습 공격했고, 다음 날 정오까지 암몬 군대는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무엘에게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모아 죽여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이는 미스바 에서 제비로 공개적으로 선출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13장 11절). 사울은 "오늘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은 언약적 왕권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인간 왕의 존재나 수행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암몬 사람들에 대한 승리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도 아래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가 왕위에 임명되었다는 명확한 확인을 제공했고, 그것은 그의 통치의 시작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사무엘상 11:14-12:25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길갈 로 불러 사울의 통치를 시작했을 때, 그는 야훼 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는 배경에서 왕권이 수립되는 의식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사무엘이 제정한 왕권이 언약과 일치한다는 명제를 고려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요청한 왕권은 언약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이 제정한 왕권이 언약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고백을 바탕으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공로는 자신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 에서 집회를 소집하여 "왕국을 새롭게 하자"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1:14, " 길갈 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새롭게 하고자 했던 왕국은 사울의 왕국이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사울이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스바 집회가 끝난 후, 사울은 기브아 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사무엘상 11:5). 그는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 것, 즉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은 사무엘이 길갈 집회 에서 하려고 했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15절). " 길갈 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15절에서 " 그들은 길갈 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읽습니다 . 사무엘상 9-11장의 사건 순서에 대한 출처 및 전통 역사 분석에서 가장 흔한 결론은 " 길갈 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는 구절과 11:14를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후 사울이 만장일치로 왕이 되었다는 전통을 그의 왕권을 갱신한 것으로 바꾸려는 편집 또는 편집 삽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왜 그럴까요? 이 길갈 전통을 10:17-27에서 미스바 에서 열린 집회에서 추첨으로 선출되어 왕이 되었다는 상충되는 전통과 조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실제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되는 전통이 있고, 편집자가 하나를 갱신으로 만들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BC 버치는 "대부분 학자들은 이 구절 11:14를 이 장에서 가장 명확한 편집 활동의 증거로 간주했으며,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거의 없는 듯하다. 편집자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중복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 입장에 대한 대표적인 요약을 내놓는다. 사울은 이미 10:24에서 왕이 되었다 . 따라서 11:15의 사례는 "갱신"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울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 사울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다면(15절) 그의 왕국이 어떻게 갱신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왕국"을 사울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NIV 번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IV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NIV가 이 두 구절에서 "새롭게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hadash*를

“왕권을 새롭게 하다”가 아닌 “왕권을 재확인하다”로 번역하여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NIV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길갈 로 가서 왕권을 재확인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15절에서 “그러므로 온 백성이 길갈 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울을 왕으로 확정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왕의 통치를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 동사 형태의 히브리어가 49번 등장하고 , 모든 경우 “왕의 통치를 확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왕으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TNIV,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이 구절에 대한 NIV의 번역을 개선하여 “길갈 로 가서 거기서 왕권을 새롭게 하자”라고 읽습니다. 그들은 “재확인” 대신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 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왕권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읽느냐에 따라,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구절(사무엘상 11:14-15)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저는 이 구절에서 “길갈 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에서 “왕국”을 야훼 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사무엘상 8-12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야훼의 왕권을 부인한 것이 사무엘상 8-12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8:7, 10:19, 12:12에서 주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이 시내산에서 수립된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2:17과 19에서 주님은 그의 은혜와 자비로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왕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의 즉위식이 거행될 때가 되자, 사무엘은 사울의 통치를 시작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11:14에서 12:25까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언약 갱신의 맥락에서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주님을 신성한 왕으로 계속 인정한다는 확언과 관련해서만 인간의 왕권이 신권 정치의 구조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14-15는 길갈 회중의 거래를 소개하고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같은 회중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은 사무엘상 12장 전체, 1-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는 독립적인 문학적 단위였던 사무엘상 11:14-15와 사무엘상 12:1-25를 비교해 보면 두 단위 모두 주요 강조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 회중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지만 두 단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전환, 둘째, 언약 폐지 후 언약 교제의 회복입니다.

사무엘상 11:14-15에서 리더십 아이디어의 전환은 사울의 취임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15절). 언약 폐지 후 언약 교제의 회복 주제는 15절에 언급된 평화 제물의 희생과 백성의 기쁨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백성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12장에서 리더십 주제의 전환은 사무엘이 과거에 국가를 지도할 때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 증언하는 것과 신권정치의 새로운 구조에서 인간 왕권이 신권정치의 구조에서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그가 계속 예언적 역할을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 폐지 후 언약 교제의 회복 주제는 사무엘이 왕을 요청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법적 증명(6-12절)과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는 잘못된 동기에서 죄를 고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16-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11:14-15와 12:1-25에서 집회의 주된 목적은 야훼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울의 취임보다 12장에 나오는 길갈 집회의 자세한 묘사에서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왕 취임은 두 구절 모두에서 언급되지만, 그것은 야훼를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로 계속 인정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11:14와 12:14-15에서 "길갈 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야훼의 왕국을"이라는 진술에서 실제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무엘이 "길갈 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의식입니다. 왕국의 갱신은 사울의 왕국의 갱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훼와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11:14-15를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사무엘 상 12장의 언약적 초점과 직접 연결하면, 길갈 회중에서 사무엘의 주된 관심사는 신권 정치의 이 중요한 재구조화 동안 언약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국가의 지도력을 자신에서 사울로 전환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언약 갱신이 리더십의 전환과 연결된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로의 전환을 통해 언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명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리더십의 전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왕조적 계승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야훼에 대한 충성을 갱신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건강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세겜 에서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모임에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야훼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언약 갱신은 국가의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입니다.

사무엘상 11:14-12:25는 국가의 지도력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를 설명합니다. 길갈 집회에서의 이 행동은 사사 시대의 종식 과 신권 정치의 완전히 새로운 구조, 즉 왕국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도력의 전환기를 통한 언약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왕권은 이제 주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부터 왕권은 언약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왕권과 언약은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은 왕권의 규범을 제공하고 왕권은 언약 행정의 필수적인 특징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1-25절에서 발견되는 길갈 에서 거행된 이 언약 갱신 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신권 정치 구조에 왕권이 도입되는 시기에 야훼에 대한 충성을 갱신하라고 도전하는 의식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새로 취임한 왕으로 백성에게 소개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백성에게서 국가의 영적, 시민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법적 입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입증의 의미는 사무엘의 리더십이 새로 취임한 왕이 본받아야 할 종류의 리더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과거의 성실함이 그가 선지자이자 국가의 영적 지도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12장을 "사무엘의 작별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작별사가 아닙니다. 그는 신권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앞 구절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리더십 위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의를 방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는 사람들에게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열방과 같은 왕이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취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압제를 가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읽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언약의 율법의 요구 사항과 완전히 일치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과 주님의 백성 의 참된 종으로서 평생 동안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

6절에서 12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전에 나라를 지도했던 인물의 성격에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언약을 어긴 행위이자 심각한 배교로 보았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야훼의 우월성을 주장한 후, 6절에서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12절에서 사무엘이 길갈 회중의 두 번째 법적 선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무엘은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행동을 주의의 초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야훼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고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7절에서 사무엘은 "이제 여기 서 있으라. 내가 너와 네 조상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주님 앞에서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NIV 번역). 더 직역하면 "여기 서 있으라. 내가 주님 앞에서 너와 법적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8-11절에 있는 주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요약은 주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그들의 과거 역사에서 그의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실함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주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11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님의 위대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이 역사적 요약물 주변 민족들과 같은 왕을 원한다는 소망을 표현한 시점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역사에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역사적 요약의 절정은 12절에서 발견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야훼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명백히 표현되었고, 따라서 긴 배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2절에서 사무엘은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대적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심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신 분은 여호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13절, “이제 여기 너희가 구한 왕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날부터 왕권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님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다.

이제 14절과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야훼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인 충성의 지속적인 의무를 제기합니다. 이제 인간의 왕권이 신권 정치의 구조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야훼에 대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 의무인 언약 공식에서 부를 수 있는 용어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시나이 언약의 기본적 규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기본적 규정을 조건부 용어인 "만약"으로 제시하여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군주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들에게 열려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기본적 규정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미래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지 저주를 경험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14절의 번역 문제로 넘어갑시다. 해석가들은 14절에 조건문의 조건을 표현하는 종속절인 프로타시스가 있지만 결론이 없다는 데 오랫동안 일반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대해 일반적으로 채택된 번역은 Revised Standard Version과 NIV에서 찾을 수 있는 번역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만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와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와 너를 다스리는 왕이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면 잘 될 것이다"라고 RSV는 말합니다. NIV는 "좋다"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만약 네가 이 모든 것을 잘 한다면. 이제 마지막 구절인 "잘 될 것이다 또는 좋을 것이다"는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며, 프로타시스가 있고 결론이 없다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14의 그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 2판 본문의 번역과 대조되는데, 그 모든 번역본은 히브리어 본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있는 것을 번역에 담고 있는데, 그것은 protasis 와 apodosis가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보통 중간에 끊어져서 히브리어 번역본에 "the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힙니다. "만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와 명령[protasis]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는 apodosis 를 시작하고] 너와 너를 다스리는 왕이 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라

.”

영어: 상하 사무엘기에 대한 주석가인 HP 스미스는 오래 전에 “then”으로 구절中间的 결론부를 시작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결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킹 제임스 성경과 NASB 등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스미스는 그렇게 하면 “동일한 명제를 만들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야훼 등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야훼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결론부가 구절中间的 “then”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5절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스미스의 해석은 마지막 구절에 대한 그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야훼를 따를 것입니다.” 또는 더 문자적으로 “당신은 야훼를 따를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야훼를 두려워하면 야훼를 따를 것입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면 그를 섬기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으면 야훼를 따르거나 야훼를 따를 것입니다. 이 문구는 구약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동일한 문구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10, 15:13, 열왕기상 12:20, 열왕기상 16:21을 포함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백성의 일부가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왕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2:10에서 이 표현은 이스보셋이 나머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유다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또는 “다윗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열왕기 상 12:20에서 유다는 왕국이 분열될 때 여로보암 대신 다윗의 집을 따랐는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에 충성을 다했다”고 문자적으로 “다윗의 집을 따랐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12:14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해하고 길갈 집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신권 정치에 인간 왕권이 도입되면서 야훼와 인간 왕 사이에 분열된 충성심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된 구약의 조건문을 취하여 새로운 차원을 부여합니다. 사무엘은 백성과 새로 임명된 왕에게 야훼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에 반항하지 않으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섬기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훼를 계속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계속 “야훼를 따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감안할 때, 스미스가 한 것처럼 “만약 당신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반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야훼를 따를 것이다”라는 표현이 중복이거나 동일한 명제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조건에 따른 언약의 조건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녀의 새로운 왕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명령에 반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들은 야훼를 계속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왕권이 신권 정치의 구조에 도입되었지만요. 다시 말해,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이 야훼에 대한 충성을 인간 통치자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15절에서 말했듯이 주님께 반항한다면, 주님의 손이 그녀의 불순종한 조상들에게 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이 신권 정치의 구조에 왕권이 도입된 후에도 야훼를 계속 주권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매우 요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간 왕도 야훼가 국가에 대한 최고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이 인간 왕이 국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왕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군주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야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16-22절에서 주님은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 하늘에서 온 표징으로 모인 백성에게 천둥과 비를 내려, 주님과 왕의 올바른 관계가 국가의 안녕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왕을 요구하는 배도의 심각성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밀 수확기, 즉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이었습니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 건조한 계절에 갑자기 천둥과 비가 내리자 백성은 깜짝 놀라 왕을 요구하는 죄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때때로 신빙성 있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신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사람들은 천둥과 비가 사무엘의 말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표징의 주된 기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현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권능의 경외감을 어느 정도 드러내어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야훼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라는 도전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고 산 위에 짙은 구름이 있었을 때”와 비슷한 표징이 주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출애굽기 19:16). 또한 미스베에서 주님 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을 치시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 때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그러하심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백성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떠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 14절로 돌아가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야 했고, 계속해서 그분을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20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언약 관계의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악은 왕권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의무는 군주제가 수립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항상 그래왔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21절: “돌이키거나 쓸모없는 우상(문자적으로는 허무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쓸모없기 때문에 당신을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번영과 안전을 찾을 수도 있고, 주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어떤 것의 “허무함”을 따르고,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제 생각에 사무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대한 경배를 전복하거나 대체하는 어떤 것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왕, 국가, 신, 우상, 무엇이든 말입니다! 주님을 해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은 허무함을 따르는 것이고, 허무함은 당신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 훈계에 이어 주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23-25절에서 사무엘은 신권 정치의 새로운 질서에서 자신의 지속적인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 23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언약 의무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이 배도하면 언약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이 뒤따릅니다. 25절에서 사무엘이 23절에서 한 말은 그가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의 "작별사"가 아니었습니다. 23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니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기능인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선하고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길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사울에게 큰 의미가 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맡으면서, 그의 행동은 항상 사무엘의 감시를 받을 것이며, 그의 행동이 왕의 법(신명기 17장)에 묘사된 규정이나 사무엘상 10:25에 나오는 왕국의 방식의 규정, 일반적으로 언약의 법, 또는 심지어 사무엘 자신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질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지속적인 활동이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할 모든 미래 사람들에게 유효할 패턴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코 자율적인 권한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무엘의 계보를 따르는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들의 계승자 중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사무엘은 백성이 어떻게 선하고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충실히 섬기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사무엘은 야훼께 대한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언약 의무의 핵심을 표현했는데, 이 충성은 그가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 큰 일에는 사무엘이 그 장의 앞부분인 8절과 그 다음 구절에서 요약한 그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공급이 포함되었지만,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한 최근의 승리, 사람들의 요청이 죄악적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신 것,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주님의 관심의 표시로 천둥과 비를 보내신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그가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로 그에게 완전하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주님을 떠나는 끈기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와 왕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회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은 사무엘상하에서 다른 장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졌는데,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신약성경으로,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종말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흐름을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이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취임을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른 어떤 나라의 왕권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왕권은 메시아적 기대와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역사의 지속적인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언약의 이상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은 언젠가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확립할 신성한 인간 왕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서는 이 왕이 그의 백성에게 처음 온 것과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의 인격을 기록합니다. 예수는 태어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동안

다윗의 아들로 인정받고 확인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선지자들이 언젠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산헤드린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인했지만, 처음 왔을 때 그의 주된 사명은 그의 백성의 죄를 속죄할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가 실제로 구약성서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사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유를 주의 깊게 설명했습니다. 예수와 사도들은 모두 예수가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할 미래의 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다윗 가문의 왕이 오는 장면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적 모습과 영광으로 온전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논의로 돌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간 왕인 사울의 통치가 실패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왕으로서 거부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특징지어진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사무엘 하 7장).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왕권과 언약의 주제로 되돌려 놓고, 사울이 실행한 왕권이 언약의 이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관찰로 이끕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 명제를 고려할 것입니다.

번역자: Shelby Linsey -Vaughn, Audra Sears, Alecia 콜렐라 , 테드 힐드브랜트, 네이션 볼터스 ,

Josh Snell, Maria Constantine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